잠에서 깨자, 별 하나 없는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달도 구름에 가려진 하늘은 한없이 새까맣다. 어느 것도 반짝이지 않는 어둠.

그걸 보고 있는 건, 눈을 감은 것과 뭐가 다를까.

“......으윽.”

잡생각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오래 잔 나머지 등이 살짝 배긴다. 더 푹신했으면 좋겠지만, 학교 옥상에서 자면서 불평하긴 좀 그렇다.

가림막 하나 없는 옥상이라 가을바람이 얼굴을 식힌다. 아직 덜 깬 잠이 절로 달아난다. 아직은 시원하기만 하지만, 좀만 지나 겨울이 되면 칼바람으로 바뀔 거다.

겨울에도 옥상에 올라가면 역시 너무 춥겠지? 잠들었다가 괜히 싸늘히 식은 시체로 발견됐다간 그런 개그도 없다.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자기 자신을 김장하다. ]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나돌고, 한동안 유머사이트를 떠돌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가방을 챙겨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가, 물탱크 사이로 몸을 비집어 넣었다. 물탱크에는 시간이 지나 이젠 희미해진 글씨가 적혀있다.

‘글월 고등학교.’

여기에 전학 온 지 1년.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점이 옥상이다. 옥상으로 이어진 계단을 물탱크 두 개가 막고 있어서, 다들 옥상 문이 없는 줄 알고 있다.

사실 그 뒤는 잠기지도 않은 문이 있는데.

그걸 전학생인 나만 알고 독점한다고 생각하니 묘한 우월감이 든다.

그래. 옥상은 나만의 공간이다!

비록 반에서는 말도 못 하고, 친한 친구도 없는 만년 전학생이지만. 의자에 앉아서 괜히 쉬는 시간마다 자는 척을 해야 하지만.

옥상은 다르다. 옥상은!

정말 나만을 위한 자유의 공간 같다.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놓인다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매번 고역이긴 하지만.

얼굴을 물탱크에 비비며 사이를 빠져나와 조심히 주위를 살폈다. 괜히 다른 사람, 특히 선생님이라도 만났다간 골치 아프다. 시간도 늦었는데 학교에서 뭐 하냐고 캐물을 게 뻔하다.

조심조심. 발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

“어?”  
처음 보는 여자애와 마주쳤다.

올라가던 여자애와 내려가던 나.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 둘 다 걸음을 우뚝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하지? 생각해! 적당한 변명, 뭔가 수상하지 않고 그럴싸한 답이 뭐 없나?

잔머리가 번뜩이는 대답을 내놨다. 이거면 된다!

“아니. 학교에 뭘 두고 와서요.”

“아하하. 제가 학교에 뭘 두고 와서요.”

“.......”

“.......”

찜찜한 침묵이 계단에 내려앉았다. 두 명 모두, 밤늦게 학교에 있을 만한 가장 그럴싸한 이유를 말했는데. 둘 다 ‘거짓말이구나’ 같은 표정을 짓는 건 왜일까.

더 대답해도 수상하게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건지 여자애는 어색하게 웃으며 슬금슬금 계단을 올라가려 한다.

나도 슬금슬금 옆으로 자리를 피해줬다. 어떤 이유에선가 학교에 몰래 가려는 여자애. 어떤 이유에선가 몰래 학교를 나가려는 나. 서로의 의견이 온전히 합의를 봤다.

나는 그대로 여자애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아무래도 좋은. 밤의 우연한 만남.

머리 한구석에 버리듯 넣어져, 다시는 찾지 않게 될 기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 여자애를 다시 만나게 된 건,

12월, 어느 겨울의 밤이었다.

======

공포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다.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통조림으로 연명하거나. 귀신이 들러붙어서 매일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거나. 미친 살인마의 표적이 돼서 쫓기는 주인공을 볼 때면.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

저 정도면 그냥 죽는 게 편한 거 아니야?

그딴 상황에서 주인공처럼 아득바득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냐고.

권총을 구하거나, 높은 빌딩이라도 올라가서 이승에서 긴급탈출하는 게 차라리 더 낫잖아? 평범한 사람이라면 나처럼 생각할걸.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은 뇌가 하는 거고, 죽으면 뇌는 멈춘다.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

무책임하긴 하지만, 죽고 나면 현실의 괴로운 일이나 끔찍한 건 전부 남의 일이다. 죽은 사람은 말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냥 이 세상에 덩그러니 시체 하나만 놓고 자기는 떠나버릴 뿐이지.

그래서 난 공포영화가 무섭지 않다. 주인공에 몰입할 수 없었거든.

만약에 내가 영화 주인공이었다면 러닝타임은 30분도 안 됐을 거다. 나라면 ‘이건 좀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든 순간. 주저 없이 이승 탈출 버튼을 눌렀을 거니까.

......그런데 세상일은 직접 겪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었다.

<<뛰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

얼음 같은 공기가 목구멍을 찔러서 피 비린 맛이 느껴진다. 차가운 바람 때문에 귀와 코는 찢어질 것 같고, 쉬지도 못한 폐와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프다.

그래도 나는 뛰고 있었다. 12월의 겨울밤에 머리에서 김이 날 만큼 뛰고 있었다.

아득바득 살아남으려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어쩌면 없어졌을까 하는 희망을 담아서.

온몸이 뜨거운 땀에 젖었는데도,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그건 여전히 날 쫓아오고 있었다.

“----!!!”

사람의 얼굴이지만 여섯 개의 눈이 달린 거미 괴물. 커다란 이빨을 까득까득 부딪히며, 여러 개의 팔다리를 파닥거리고 나를 향해 뛰어온다.

대체 저딴 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왜 나를 노리는 거냐고!?

정체가 뭔데!? 비밀스러운 실험실에서 탈출한 괴물이냐? 아니면 저주받은 영상에 담긴 귀신?

하도 달린 탓에 머리가 정신없이 빙빙 돈다. 어지럽다. 밤이라 주위는 깜깜하고 무작정 뛰어대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저 도망치겠다는 생각뿐이다.

애초에 난 왜 도망가는 거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편해지면 그만이잖아. 잡혀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어째선가 다리를 멈출 수가 없다. 어떻게든 좀 더 살아남으려고 폐를 쥐어짜게 된다. 뒤에서 쫓아오는 괴물의 발소리에서 멀어지려고 죽기 살기로 뛰었다.

그것도 한계였다.

머리가 아무리 뛰라고 외쳐도, 다리는 더 달릴 수 없었다.

바닥을 헛디디는 감각과 함께 앞으로 넘어졌다.

<<화면 회전>>

“끄으….”

턱이 아프다. 시멘트 바닥에 찧었는지 입안에 고인 비릿한 맛이 속을 뒤집는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는다.

괴물의 손 중 하나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 괴물은 나를 노려보고 입이 찢어지라 웃었다.

술래잡기가 끝났다.

그렇다면 남은 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진다. 희생양을 한입에 삼켜버릴 크기의 커다란 입. 괴물의 입이 만든 그림자가 날 덧씌웠다.

나. 죽는구나.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의 이른 장례식이 되겠지. 담임선생님이 데려온 같은 반 애들이 조문객으로 올 거다. 다들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절은 하겠지만.

아마 누구도 울지 않겠지.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반에서 혼자 놀던 나다운 장례식일 거야. 전학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누구하고도 제대로 친해지지 못한 사람다운 최후다.

그래봤자 내가 죽고 나면 그만이잖아. 나는 관 안에서 편하게 잠들어있는걸. 쟤네들이 슬퍼하던, 웃어 재끼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 분명 그랬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왜 외로워하는 걸까.

난 어째서 후회하고 있는 걸까.

이빨이 다가오는 걸 마지막으로 보며 눈을 감았다.

<<쾅>>

“우와악!?”

엄청난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피어오른 먼지구름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눈에 익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애. 하지만 손에 들린 두 개의 단검이 괴리감을 뿜어내고 있다.

그 기묘한 상황에서도 머리는 용케 기억을 뒤집어엎어, 과거에 만났던 얼굴을 기억해냈다.

몇 주 전 밤.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애였다.

여자애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빨리 도망쳐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렇게 큰 건 처음 보는데.”

여자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괴물을 향해 뛰쳐나갔다. 괴물도 여자애를 눈치채고는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다.

여자애는 가볍게 빙글 돌아 피하곤, 괴물의 다리 하나를 베어낸다. 차례차례 괴물이 다른 다리를 뻗지만, 여자애에게 닿지는 못한다.

뻗은 괴물의 다리에만 상처가 계속 새겨진다. 괴물은 다리가 두 개나 떨어지자, 공격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다.

도, 도망가려나? 제발 도망가라. 제발!

내 바람과 달리 괴물의 눈은 오히려 분노로 차올랐다. 괴물이 단번에 남은 팔다리를 모조리 뻗었다.

여자애가 아까처럼 다리를 끊어낸다. 그런데도 괴물은 다리 몇 개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전력으로 달려든다.

<<챙강>>

무차별로 휘두르는 다리 하나에 맞은 여자애가 쥐고 있던 단검을 떨어뜨렸다.

“----”

괴물이 웃으며 여자애에게 다가간다. 주춤주춤 물러나던 여자애는 그 상황에서도 날 쳐다본다.

도망가.

여자애는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자기 앞에 있는 괴물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도.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났다. 괴물은 여자애에게 집중하느라 나는 아예 관심 밖에 있다.

이대로 도망가면 돼. 저 애도 처음부터 나보고 도망치라 했잖아. 머릿속 한구석에서 내게 본능이 외치고 있다.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게 조용히 한 발짝씩 걸음을 떼자, 충분한 거리가 생겼다.

지금이다.

나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달렸다.

<<뛰는 소리>>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왜 그렇게 필사적인지 이제 알겠다. 그냥 단순히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다.

주인공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삶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그에 비해 나는?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살아왔다. 외로워도 친구 하나 만들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랬던 주제에 막상 죽음을 앞에 두니까, 겁에 질려서 추하게 도망쳤다. 여태껏 하지 않은 수많은 미련을 떠올리고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더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걸 깨달은 지금부터라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혹사에 지친 다리가 겁으로 후들거린다. 우스꽝스럽게 달리는 도중에도 본능이 외친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경고를 울려대는 생각을 끄듯이 소리 지르며

“으아아아아!!!”

<<퍼억>>

괴물을 어깨로 들이받았다.

괴물이 나와 함께 넘어지며 땅을 구른다.

내가 만들어낸 잠깐의 틈. 그 사이 여자애가 움직였다.

떨어진 단검을 들고 괴물을 향해 솟구치듯 팔을 내지른다.

“----!!!!”

괴물이 이마에 박힌 단검을 빼내려고 다리를 파닥인다. 하지만 깊이 박힌 단검은 빠지지 않는다.

끝까지 바둥거리던 괴물의 팔다리가 축 늘어졌다. 아까까지 살아 움직이던 괴물이 조각조각 나뉘어 없어져 간다. 이내 괴물은 흔적도 없이 골목에서 사라졌다.

“하하….”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온다. 무슨 사라지는 것도 공포영화랑 비슷하냐고.

“도망가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눈을 찡그리곤 주저앉은 내게 다가왔다.

“선배가 도망치면, 저 혼자 빠져나오면 되는 건데.”

“......아.”

그런 소리였구나. 당연히 여기는 내게 맡기고 너는 도망쳐.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겁먹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어요?”

“선배가 입은 바지. 축축하잖아요.”

여자애는 웃음을 참는 표정을 짓고는, 손가락으로 내 바지를 가리킨다.

설마 나.

오줌을......!!

바로 고개를 내려 밑을 확인했다.

어? 무릎 쪽이 찢어진 거 말고는 멀쩡한데?

“그래도 고마워요.”

머리에 따듯한 뭔가가 얹어졌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내 뒤통수를 여자애가 쓰다듬었다.

“같은 학교 1학년인 채아람이에요.”

쓰다듬는 걸 멈춘 채아람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마주쳤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선배.”

그렇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12월, 어느 겨울의 밤이었다.